

연중기획 생활현안 도전 1. 주차난 ④ 지하공간 활용

공감 불구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좌초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도내 주차장은 모두 3만7950개소 24만8750면이다. 이 중 노상주차장은 701곳 1만7231면, 노외주차장 1006곳 3만4277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6835곳 17만4207면, 영입용 차고지 9408곳 2만6822면이다. 단순 통계 상 같은 기간에 등록된 차량 26만4000여대(리스차량 제외)에 비해 주차공급률은 90%를 넘는다.



제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조성을 검토했지만 철차 문제 및 사업중단 우려, 막대한 예산 등의 요인으로 백지화 됐다. 사진은 지하주차장 조성을 검토한 바 있는 제주북초등학교 정경. 강희만기자

▶갈수록 힘든 지상 주차공간 확보=수치 상만 보면 주차난은 심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공영주차장 부족, 불법 주·정차, 공영주차장 무료화에 따른 저조한 주차회전율, 외부차량 유입 등으로 도심권 주차난은 '대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주차면수의 68%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또 회전이 그리 높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지상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면 수지와 달리 지상주차장 턱없이 부족 서울시 학교 운동장 등 지하공간 활용 눈길 제주도 추진... 막대한 예산문제로 백지화

이같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 하지만, 비싼 땅 값 등의 이유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 지하주차장으로 눈 돌려=서울시의 경우 지상 주차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자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지원, 학교 운동장 및 공원 등 공공시설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1년 현재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22개소 2906면, 공원 등 지하주차장 29개소 4106면 등 총 51곳에 이르는 지하주차공간을 조성해 7012면을 확보했다.

▶지역여건 상 지하주차장 가 능하나=제주지역에서도 이미 몇 해 전에 이러한 움직임이 추진된 바 있다.

2005년 당시 제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과제로 검토해 오던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차원에서 제주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광양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제주중앙여자중학교 등도 병행해 지하주차장 조성을 마련하

려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이후 제주시는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용지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막대한 예산 문제 등으로 결국 백지화됐다.

제주도의 경우도 청사 내 지상 주차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건설비용이 과다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적에 이 또한 흐지부지 됐다.

김황배 제주도 주차관리종합 계획 수립 연구 책임연구원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 비춰볼 때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봉기기자

고사리축제 지역문화체험축제로

4월19일부터 남원읍 일원... 힐링투어 등 눈길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 대표적 축제인 '한라산정경고사리축제'가 올해부터 기존 행사성 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체험축제'로 변신한다.

에서 남원 해수욕장 공영장과 남원읍 일원으로 확대된다. 남원읍(읍장 강익주)은 최근 이같은 축제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실무형 축제위원회(위원장 고금녀)를 구성했다. 이어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제18회 한라산정경고사리축제'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축제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춰 '에코힐링투어' '체험학습투어' '공정여행'을 컨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립도 강화 ▶마을 공동체 발전 및 연대 강화 ▶새로운 문화콘텐츠 생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주행사에서 열리는 상설프로그램은 개막식, 북콘서트, 서귀포고사리어린이합창대회, 서귀포 청소년한마당, 주민노래자랑, 시민동아리축제, 고사리 음식잔치, 폐막식으로 진행되고 각 마을단위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을 마련

한다. 각 마을마다 바다마을체험, 중산간마을체험, 지역관광상품 체험 등이 이뤄져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다. 또 지역의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1박2일 체류 및 코스, 투어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부대이벤트로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와 함께 체험프로그램에 지역의 어르신들을 활용해 가이드 및 해설사로 참여시키는 등 한단계 도약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현숙기자

주관 : 제주돈육수출센터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주돈육수출센터

제주흑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을 축하드립니다
제주돈육수출센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의 후원으로 제주흑돼지고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주흑돼지고기전문판매점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정업소

카산도방

깜돈 흑돼지

깜돈흑돼지

어사초도어지

어사초도어지

흑돼지가 있는 풍경

흑돼지가 있는 풍경

흑도명가

흑도명가

제주돈육수출센터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 도원로 87, T.794-7017

2011년 지정 업소
늘봄흑돼지,꺼멍,돈앤들,돈향기,목포고,물이랑흑돼지,산골숯불알소금구이,쉬는광,엄마돼지,유명흑돼지촌,해오름식당,제주길흑돼지,제주흑돈분가,제주흑돈 시화점,제주흑돈안산,제주흑돈 동탄지점,제주흑돈분당,흑돼지한마당

제주시 안덕향우회 정기총회 알림

2013년도 제주시 안덕향우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향우회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2013년 3월 9일(토) 오후 6시
- 장 소 : 제주시 로얄호텔 연회장(2층)
- 안 건 : 2012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예산 승인의 건
기 타
- 연락처 : 총무부장 이태운 010-3693-1827
재무부장 강보승 011-696-1087

제주시 안덕향우회 회장 고 상 용

제주트랜스

제주 화물 사업부

전국 <→> 제주 화물 운송 전문
-제주화물 운송비용 탄력 적용-

T. 1644-9224 F. 02)2615-2402

서울사무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12번지 서부트럭터미널 B동 104호

제주 이사 사업부

사무실이사 전문
제주도 포장이사 전문

전국 <→> 제주 포장이사 전문
-사다리차(엘리카) 고층 2대 / 저층 2대 -

T. 064)745-0024 F. 064)744-2404

제주사무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동 698-3번지 101호

문의사항 항상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유산 제주 발달 조명 잇따라

농촌진흥청 '농업·농촌유산보전 한중일 워크숍' 제주발전연구원도 문화경관·인문학 가치 세미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중인 제주 발달을 조명하는 전국단위 워크숍을 비롯해 세미나가 잇따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지난 4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업·농촌 유산 보전을 위한 한중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도 발달과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논의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등재 준비를 앞두고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한국 농업·농촌 유산의 현황과 지원제도, 한국 등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제주학연구소는 '제주발달'의 국가 농업유산 지정을 기념해 오는 8일 오후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상공회의소)에서 '제주발달의 문화경관과 인문학 가치'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발달의 문화경관과 인문학 가치를 대내외로 홍보하고, 보전·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세계농업유산으로의 등재기반 조성과 FAO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제주 발달의 세계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 마련의 일환이다. 강시영기자 sykang@ihalla.com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애물단지

정상가동 요원... 잦은 고장으로 '돈먹는 하마'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청정특구 마라도의 청정 환경 유지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2006년 3월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상가동되지 않아 디젤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잦은 고장으로 인해 돈먹는 시설로 전락했다.

실제 지난 2010년도 4억4600만 원을 들여 축전지 300개, 인버터 2대, 모니터링 1대에 대한 보수

공사를 했고 이어 2011년 1300만 원을 투자해 디젤발전기 신규 발전기실로 이설공사를 했다.

이어 지난 2012년 1억9000여만 원으로 전지판 지지대 구조물 부식부 보강 및 축전지를 교체했으나 아직까지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초 건설 당시 구조설계의 유지보수와 제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우선 고려해 설계했고 효율성과 안전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동원됐다고 강조했으나 아직까지도 정상가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태양전지판 전체가 지붕형

태로 설치돼 있고 통풍이 전혀 없도록 주위를 돌로 둘러쌓아 놓아 통풍불량으로 인한 빠른 노후로 이어지고 있어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현우병 의원은 "마라도 태양광 발전설비 미가동은 제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 심히 걱정"이라며 "마라도가 청정특구로 지정된 만큼 빠른 해결방안을 찾고 태양광 발전기를 사용, 당초 계획대로 청정 환경 유지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대리기자

'노루랑 놀자' 생태프로그램 운영

노루관찰원, 이달 13일부터 주3회

질문생태관리사무소 노루생태관찰원은 어린이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노루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이달 13일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3회(수·목·금요일) 총 8회에 걸쳐 1600명(회당 20명 안팎)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노루생태관찰원 홈페이지(http://roedeer.jejusi.go.kr)에서 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노루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배우

면서 노루와 친밀감을 키우는 노루만들기 및 노루먹이주기과 어린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는 나무로 동물일곱 만들기, 나무팽이 만들기, 딱따구리 만들기 등 다양하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